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시민단체들 “정상 교육 질서 회복하는 중대 전환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같은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지난해 4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에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시의회는 다시 이 안건을 가결해 폐지를 확정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러는 사이 같은 내용의 폐지안이 이번에는 주민 발의 형태로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가결된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본회의 의결은 단순히 조례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왜곡된 인권 담론으로 인해 무너졌던 학교 교육의 균형을 회복하고,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 학습권과 책임이 조화되는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키며, 학생 스스로의 책임과 성장의 기회를 오히려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조례 폐지는 그러한 문

제점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숙의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의결이 학생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인권 보호, 그리고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결단에 깊은 존중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정책과 입법이 계속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의회 건물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시민연대

“당신은 왜 살며,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 오산리 특별성회
이틀날 말씀 전해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특별성회가 16일 오산리최자실기독교침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2027년 열릴 '8천만 민족 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15~20일 일정으로 오산리 최자실기독교침례교회(원장 이영훈 목사)에서 특별성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민족 복음화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일차별로 전국의 대표적 기도운동 지도자와 현장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성회 이틀날 오전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가 단에 올라 '사명'(요나 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소명의식의 부재”라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소명의식만 분명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명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동물처럼 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큰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이 있다”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2.8%의 소금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적어도 15% 이상의 기독교인

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과연 썩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일들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성회는 매일 4회(새벽·오전·오후·저녁)의 예배로 구성되며, 한국교회의 중진 목회자부터 차세대 사역자까지 폭넓게 참여해 '기도·회개·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민족적 기도 연합을 도모한다.

주요 강사로는 이태희 목사(총재), 이영훈 목사(대표회장), 장항희 목사, 김대성 목사, 김병호 목사, 김문훈 목사, 정여균 목사, 강복렬 목사, 김원철 목사 등이다. 모든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이번 성회는 단순한 오산리기도원 집회를 넘어, 2027년 대성회를 향한 전국적 영적 플랫폼 구축의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8천만 민족의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 확산 △코로나로 문 닫은 1만 교회 회복운동 △불신자 100만인 전도라는 3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리기도원 성회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7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의 첫 대규모 연합성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2025년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구절은?

성경 앱 검색량 분석 결과 공개
기도와 감사의 메시지에 위로를 구한 한 해



하이패밀리 내 영혼의 GPS ©하이패밀리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 읽고 밑줄을 그은 성경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나타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구절은 불안과 염려가 일상이 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방향성을 제시한 말씀으로 꼽혔다.

이번 결과는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가 기독교복음방송 GOODTV에 의뢰해 ‘다년역성경찬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성경구절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하이패밀리는 매년 성경 앱 검색량을 토대로 성도들이 실제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가늠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2023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가장 많이 읽힌 말씀으로 집계됐다. 송길원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한국교회가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과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염려’보다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향한 갈망을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2위는 빌립보서 4장 7절이 차지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는 구절로, 1위 말씀과 함께 자주 목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과 불드심을 약속하는 말씀이 높은 공감도를 얻었다.

연도별 흐름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말씀 선택에는 일정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로마서 12장 2절이 가장 많이 읽힌 말씀으로 집계됐으며, 그해 2위와 3위는 각각 빌립보서 4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다. 변화와 분별, 감사의 메시지가 강조된 구절들이 상위권을 형성하며 당시 교회의 영적 관심사를 반영했다.

처음 조사가 이뤄진 2023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나란히 1·2위를 기록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병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이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목상된 셈이다.

하이패밀리는 2022년 경기도 양평에 성경의 벽 ‘K-바이블’을 조성한 이후, 2023년부터 매년 성경 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오고 있다. ‘K-바이블’ 현장에는 ‘내 영혼의 GPS(God's People Stories)’라는 사인보드로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이패밀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중심으로 한 공동설교문 제작과 배포다. 송길원 대표는 공동설교문이 송구영신예배와 연말연시 예배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개별 교회를 넘어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경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후수아 1장 9절 등 신앙의 본질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절들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최승연 기자

기념사업회, ‘사진으로 보는 헨리 G. 아펜젤러’ 발간 >> 7면

동안교회, 제3회 아동미술대회 시상식·아트페스티벌 >> 23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